

■ 서평

제주문화의 포괄적 이해를 위한 지침서

—현길언 『제주문화론』(탐라목석원)

현 승 환*

1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어느 곳에서 살든 자연과 순응하거나 도전하며 한평생을 살다가 생을 마치게 된다. 학자들은 이러한 인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왔을가에 관심을 갖고 많은 학자들은 고민해 왔다. 그것은 인류학이라는 학문으로 발전했다. 이 학문은 인간의 체질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자연인류학과 그 인간이 이 세상에 남긴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인류학으로 나뉜다. 문화인류학은 고고학, 민족학, 민족지학, 민속학, 사회인류학, 언어학 등으로 나뉘어 세부적인 논의가 이루어진다. 현길언의 제주문화론은 바로 이러한 문화인류학의 영역에 속한다.

문화는 타일러의 정의에 따르면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기타 사회 성원으로서의 인간에 의하여 획득된 모든 능력이나 습성의 복합적 전체이다. 이를 더 줄인다면 사회성원의 생활양식이 된다. 그것은 크게 기술문화, 사회문화, 가치문화로 분류되며 문학은 종교, 윤리 등과 더불어 가치문화에 속하는 시간예술이다. 각 문화요소는 상호 기능하며

전승되는 구조체이므로 문화도 그 문화체계 속의 한 요소로 기능한다. 따라서 한 사회에서 문학을 대상으로 문화요소의 구조적 기능관계를 살피는 작업은 중요하다.

제주도는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진 지정학적 관계로 그 문화의 특수성이 유달리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많은 문화인류학자들이 제주의 문화를 분야별로 나누어 그 연구성과를 드러내놓고 있다. 현길언의 제주문화론도 그런 연구성과의 하나이다.

그러나 현길언의 제주문화론은 제주의 문화를 직접 몸으로 체득하고 또한 중심부인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문화의 다양성을 경험한 후 쓰여졌다는 점에서 여타의 문화를 언급한 저서와 그 궤를 달리한다. 그는 서문에서 15년 전에 제주를 떠났으며, 그 이후로 어느 한 곳에 마음을 정착하지 못한 나그네처럼 살아왔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고향에 대한 애증의 마음이 교차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제주문화론은 그 동안의 혼란스러움을 정리하는 완성된 결정체라 하였다. 그렇다고 보면 그의 제주문화론은 제주를 사랑하면서도 고향을 떠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향의 정을 느낄 수 있게 해 주고, 제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제주의 미래를 예측하고 이끌어 나가는 데 필요한 지침서라 할 수 있어 그 의미가 크다.

2

제주문화론은 다른 책과 달리 목차에서부터 친근감이 든다. 제주의 자연과 사람, 제주의 문화, 제주의 문학, 제주의 미래라는 큰 타이틀은 쉽게 접근하고픈 마음을 갖게 한다. 그 하위에는 제주문화와 제주사람의 의식의 바탕, 물(水)에 대한 제주사람의 인문학적 인식, 바다에 대한 제주사람의 인식, 한라산과 제주사람, 제주문화의 기저와 성격, 제주의 들문화, 전통문화 계승에 대한 몇 가지 생각, 제주학 연구방법론, 제주설화

와 그 주변성, 바다와 섬의 문학성과 문학의 본질성, 역사와 문학, 아름다운 자연과 아름다운 문화, 새로운 제주문화를 위하여라는 13편의 주옥 같은 논문을 체계적으로 결집시켰다.

제주의 자연과 사람이라는 장에서는 탐라부족국가 시대에 독립적인 의식이 반도에 복속되면서 서서히 주변국으로 전락해 감을 보였다. 고려 태조 때 성주 고자견이 태자 말로를 고려에 입조시키기 시작한 후부터 탐라와 고려는 대등한 외교관계가 깨지면서 부족국가의 정통은 서서히 허물어지게 되었다. 근세에 들어서는 6·25 전쟁으로 많은 피난민들이 입도하면서 전통적인 제주문화가 급격하게 변모하고, 그 결과 외면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체제에 흡수되고, 정치적으로 독자성을 잃게 되지만, 내면적으로는 독자적인 문화를 고집스럽게 유지하려 애쓰고 있다고 보았다. 제주가 고려조에 삼별초가 들어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반이 된 것이나, 길운질, 소유적, 양계해, 방성칠 등으로 이어지는 변란이 의미하는 것은 중앙정부에 대한 분리의식을 드러낸 것이라 본다. 이러한 분리주의 의식은 고종달, 아기장수, 광정당, 김녕사굴 전설 등을 통해 볼 때, 반지배이데올로기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부에서 일탈된 집단의 자의식의 한 변형으로 나타나며 그것은 중심부 지향성과 상통한다. 그러한 점은 제주사람의 공동체 생활 양식인 수눌음, 가문 중시의 제사, 풍수, 관혼상제 등에서도 드러나며 이들은 개방성을 전제로 하면서 일면 폐쇄적인 이중구조적 사고가 드러나는데 이러한 성격을 주변성이라 규정짓는다.

이 주변성은 핵심이 아닌 변방이라는 부정적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에 다가가려는 변방 나름대로의 정체성과 그를 토대로 한 노력이라는 긍정적 의미로 해석하고자 하는 것이 저자의 의도로 생각된다.

제주의 문화를 다루는 장에서는 제주의 기층문화를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형성된 전통문화의 계승방법을 추구한다.

지정학적 위치상 한반도 남중국, 오키나와, 일본의 중간에 위치한 제주

는 고려, 조선 두 왕조의 통치권 안에서는 변방지역으로 대접받았다. 중국의 삼국지 위치와 후한서 동이전에 주호로 알려진 제주의 문화는 건국신화라 할 수 있는 삼성신화를 통해 볼 때 땅에서 솟아난 삼을나와 오곡의 종자를 갖고 온 도래인이라는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 이 도래인과 토박이는 대립관계가 아니라 화해의 속성을 드러낸다. 김녕 케네깃당 본풀이에서도 강남천자국에서 인간으로 태어난 백주또가 소천국을 찾아와 결혼하는 데서도 화해의 면모를 엿볼 수 있어 외래인들과 토박이와의 관계가 긍정적이다. 하지만 고려조 때 중앙정부 체제하에 들어가게 된 후 중앙에서 파견된 세력이 행정, 군사, 사법권을 맡게 되면서 외래인은 부정적으로 인식된다. 이형상 목사의 신당철폐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 서련 판관의 김녕뱀굴 퇴치 설화에 대한 인식들을 통해서도 부정적 영향을 엿볼 수 있다. 일제시대에는 일본인이 행정관서의 상위직을 독점하면서 지역문화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근래에는 외부에서 제주도로 이주한 사람들이 그들의 문화를 우선시함으로써 나타나는 반발은 제주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전통문화 계승운동으로 움트게 되었다.

이러한 제주문화의 성격은 다층성과 분리주의적 성격으로 설명한다. 가정에서는 부부가 서로 다른 영역의 문화 생활을 하고, 마을에서는 남자가 다른 제의행위를 한다. 이러한 다층성은 남방과 북방문화의 혼재, 종교적으로 남유여무의 이중구조 중심부 지향성과 분리주의 성향, 양반 지향성과 서민성, 명분주의와 실리성, 협동성과 분파성, 해양문화와 농경 문화 등 모두가 서로 대립되지만 조화롭게 공존하는 데서 그 특징이 찾아진다. 그 결과 제주문화는 중심부를 지향하면서 반발하기도 하지만 외부분화를 실리적으로 수용하는 문화로 변화하였다. 바로 이것이 제주문화가 갖는 주변적 성격이라 할 만하다.

하지만 현길언은 이러한 주변적 성격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한다. 오히려 제주인은 제주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적극적 사고를 가져야 한다. 고유한 것이라고 제주의 것만 고집하고 다른 사고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제주는 왜 제주답게 살 수밖에 없었는가를 이해하고, 전통의

제승이 이루어져야 한다. 초가, 밭돌담, 무속, 민요, 설화 등에 우리의 혼과 삶의 실상을 담으면서 보존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맹목적으로 세계화를 부르짖으며 제주의 정체성에 소홀한 작금의 정책을 비판하며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의 문학을 논하는 장에서는 제주학이라는 영역을 마련하여 범도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제주는 본토와는 달리 이질적인 문화를 이루고, 제주인의 의식도 유교중심적이지 아니라는 점에서 특징을 띄고 있어, 여기서 생산된 문학을 제주문학이라 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제주문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주변성에 대한 탐구를 전제로 제주만이 갖는 특성을 찾아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제주의 미래를 논하는 장에서는 21세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제주의 문화를 토대로 한 변화를 이룩해야 한다고 한다. 제주가 서울이 될 수 없음은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제주사람이 누리는 고급문화와 예술이 있기 때문이다. 산, 언어, 바다, 섬 어느 것 하나 버릴 수 없는 아름다운 것이기에 이를 토대로 외부의 것을 수용해야 한다. 닫힌 공간이 아니라 열린공간으로 제주문화 우월주의나 문화 보수주의에 빠지지 말고 창조적 자세를 취해야 한다.

제주사람의 주거공간을 문화화, 예술화하고, 지방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전문 예술인 육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행정 편의주의의 전시행사는 지양해야 한다. 그럴 때 제주민은 문화주체자로서 고립된 문화에서 공동체 화해의 문화를 지향하여 새로운 제주문화를 건설하는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상의 논의는 저자의 조그만 생각의 편린을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된다. 제주문화론에 실린 저자의 문화에 대한 생각의 일단을 살펴면서, 문

학을 통한 제주문화의 특성 정립 역시 중요한 작업임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된다.

일천한 문화에 대한 지식으로는 제주의 문화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그의 저서 서론에서 밝혔듯이 고향을 떠나 15년을 외부에서 바라본 제주이기에 아주 객관적으로 제주문화를 설명하였다고 본다. 특히 그가 내세우는 주변성은 독자들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제주민의 정체성을 찾는 한 방안이 되도록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현길언의 제주문화론은 마땅히 제주문화의 포괄적 이해를 위한 지침서가 없는 현 시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하겠다.